

외국인조선어교육에서 윽김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최 승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문법구조도 짚었습니다. 문법구조가 짚었다는것은 언어가 그만큼 발전되였다는것을 말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 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언어학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조선어교육에서 윽김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윽김법이란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되살려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기가 이미 한 말, 생각 같은것을 다시 되살려 옮겨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국인조선어교육에서 윽김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우리 말의 인용구와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알도록 하는것이다.

인용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글 또는 생각이나 판단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쓴 문구나 구절을 말한다.

례: ① 동생은 나에게 《축포야회구경을 가자!》라고 했다.

② 그 아이는 갑자기 《어마나!》하고 웨쳤다.

③ 나는 순희에게 야영생활이 즐거웠던가고 물었다.

④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의 실례 ①, ②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경우이고 실례 ③, ④는 말하는 사람의 말을 풀어옮긴것이다.

인용구에는 직접인용구와 간접인용구가 있다.

직접인용구는 자신이나 남의 말과 글, 생각 등을 표현한 그대로 인용하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윽김표를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이다.

례: 옥이는 나의 동생을 보고 《귀엽다.》라고 말했다.

그때 갑자기 가까이에서 《팡!》하고 폭탄이 터졌다.

직접인용구에서는 토 《라고》 또는 《하고》를 사용한다.

간접인용구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글, 생각이나 판단을 자신의 관점에서 인용하는것이다. 따라서 원래의 표현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변화를 줄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윽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 존경, 시간의 의미는 변화시키지 않고 원래의 의미그대로 표현한다.

레: 옥이는 나의 동생을 보고 귀엽다고 말했다.

철수는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간접인용구에서는 말차림의 높임이 없으며 문장의 종류에 따라 제한된 토만 사용한다.

레: ○ 그는 아버지에게 《집에 갔다왔어요.》라고 말했다.(알림문)

(그는 아버지에게 집에 갔다왔다고 말했다.)

○ 그는 아버지에게 《어디 가십니까?》라고 물었다.(물음문)

(그는 아버지에게 어디 가시는가고 물었다.)

○ 형님은 나에게 《여기 앉아.》라고 말했다.(시킴문)

(형님은 나에게 여기 앉으라고 말했다.)

○ 그는 나에게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추김문)

(그는 나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다.)

○ 그는 나에게 《날씨가 참 좋구만.》라고 말했다.(감탄문)

(그는 나에게 날씨가 참 좋다고 말했다.)

간접인용구에서 맺음토를 보면 알림문에는 《다, ㄴ 다/는다》(체언이 용언형으로 끝나는 문장에서는 《라/이라》), 물음문에는 《는가, 느냐》, 시킴문에는 《라/으라》, 추김문에는 《자》, 감탄문에는 《다》가 쓰인다.

일상회화에서의 간접인용은 《고 말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용언의 경우에 맺음토 《대, ㄴ 대/는데, 대요, ㄴ 대요/는데요》를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즉 알림문에는 《대, ㄴ 대/는데, 대요, ㄴ 대요/는데요》(레: 철수가 학교에 간대.), 시킴문에는 《태, 태요》(레: 아버지가 빨리 학교에 가래.), 추김문에는 《재, 재요》(레: 형이 영화보러 가재.), 감탄문에는 《대, 대요》(레: 친구가 너무 춥대.)를 사용한다.

간접인용구에서 주어나 보어는 의미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생략이 가능하다.

레: ○ 어머니는 나에게 (너) 숙제를 다했는가고 물으셨다.

○ 나는 인철에게 (그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말했다.

우의 첫째 실례에서는 괄호안의 말들을 생략해도 의미에 혼란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략하는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의 두번째 실례의 경우는 《그가》라는 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외국인조선어교육에서 윗김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으로 현대조선어의 풀어윗김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잘 알도록 하는것이다.

우선 《~지 않다》로 끝난 문장의 윗김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 형태는 이음토 《지》와 《아니+하다》의 준 형태인 《않다》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하다》는 동사이다.

《않다》는 문장에서 동사로 쓰이는 경우와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가지 않다, 오지 않다》에 쓰인 《않다》는 동사이며 《춥지 않다, 많지 않다》에 쓰인 《않다》는 형용사적으로 쓰인것이다.

그런데 우리 말을 배우는 외국인들은 《~지 않다》가 들어간 문장을 풀어윗길 때 《않다》

를 동사로만 알고 풀어 옮겨 오유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례로 《가지 않다, 오지 않다.》는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지 않는다고 하였다.》라고 정확히 풀어 옮기지만 《줍지 않다, 많지 않다.》는 《줍지 않는다고 하였다, 많지 않는다고 하였다.》라고 풀어 옮겨 오유를 범한다.

일반적으로 이음토 《지》의 앞에 동사가 쓰이였는가, 형용사가 쓰이였는가에 따라 이음토 《지》의 뒤에 쓰인 《않다》의 품사소속이 결정된다.

이러한 어휘사용에서의 오유현상은 우리 말 어휘들의 다의성에 대하여 잘 파악하지 못 한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더》계렬의 맺음토가 들어간 문장의 옮김과 관련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더》계렬토들은 과거지속,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더》계렬의 맺음토로 끝나는 문장을 풀어 옮기는 방식은 다른 토들로 끝난 문장을 풀어 옮기는 방식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더》계렬의 맺음토밖의 토들로 끝난 문장은 알림문의 경우에 《~ㄴ다고》, 《~는다고》, 《다고》, 물음문의 경우에 《ㄴ가고》, 《는가고》, 《~느냐고》, 추김문의 경우에 《~자고》, 시킴문의 경우에 《라고》 등을 써서 풀어 옮긴다.

그러나 《더》계렬의 맺음토들이 문장의 종결술어에 쓰인 문장에 대해서는 알림문의 경우에 《더라고》, 물음문의 경우 《던가고》, 《더냐고》가 쓰이며 추김문, 시킴문의 경우 《더》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풀어 옮김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알림문이나 물음문을 일률적으로 풀어 옮기려고 하면 오유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레: ○ 그 사람이 네게 단단히 반했더구나.

○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봤더라?

우의 실례에서 《반했더구나》는 《반했더라고》로, 《봤더라》는 《봤던가고》로 풀어 옮기고 《하다, 말하다》를 붙여야 한다.

레: ○ 서울을 지나오면서 보니 우리 집은 미국놈폭격에 날아났더군요.

○ 허허... 흠쩍한 머느리감이 줄줄 따라다니더구만.

○ 그래, 굽던?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의 경우 우의 실례와 같은 문장을 풀어 옮기면서 자주 《날아났더군요》를 《날아났다고》로, 《따라다니더구만》을 《따라다닌다고》로, 《굽던》을 《고운가고》로 풀어 옮긴다.

그러므로 알림문에 쓰이는 《ㄹ니다, 더라, 더구나, 더구만》 등의 토는 《더라고 하였다》라고 풀어 옮겨야 하며 물음문에 쓰이는 《디까, 던가, 더냐, 디》 등은 《던가고 물었다(하였다)》라고 풀어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외국인조선어교육에서 옮김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으로 약속이나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알림문을 정확히 풀어 옮기도록 하는 문제이다.

실례로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지키마.》, 《내가 거기에 꼭 가야지.》와 같은 문장은 외국인조선어학습자들이 《자기는 너와 한 약속을 지킨다고 하였다.》, 《자기가 거기에 꼭 간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경우에는 《자기는 나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였다.》, 《자기가 거기에 꼭 가겠다고 하였다.》라고 해야 정확한것으로 된다. 그것은 약속한 행동이 실현되는 시간은 미래이며 미래시간토 《겠》이 미래의 의미와 말하는 사람의 의지도 나타내기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말의 율김법에 대한 연구를 보다 깊이있게 하여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외국인조선어교육을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